

## 농촌 결혼이주여성들의 한국생활 경험에 대한 인식

이현심\*

서울벤처대학원대학교 사회복지학과(서울시 강남구 삼성동)

### 국문요약

본 연구는 농촌지역에 거주하는 결혼이주여성의 한국생활 경험에 대한 인식을 알아보기 위한 것이다. 경기도와 인천에 거주하는 이주여성을 대상으로 자기기입 방식으로 설문조사를 하였다. 수집한 자료는 SAS(Statistical Analysis System) 활용하여 빈도분석, 백분율, 평균, 표준편차 등의 기술통계방법을 사용하였다. 연구결과에서 이주여성들의 절반이상은 자신들의 생활에 만족하고 있으며, 남편과의 만족도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자녀교육에 대한 인식에서 가장 어려운 점은 학습지도이며, 자녀에게 가장 필요한 지원은 기초 교과지도, 자녀교육의 문제해결 방법으로 방과 후 학교교육 활성화와 언어소통으로 나타났다. 한국생활에서 힘든 점은 언어문제이며, 차별받은 장소는 공공장소로 나타났다. 한국 사회에 적응하는데 가장 필요한 도움은 언어소통, 자녀교육, 지역사회 적응의 문제가 같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자주 참여하는 모임이나 활동은 종교단체, 모국친구 모임이며, 어려울 때 의논하는 사람은 한국인, 모국인 순서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에 따라 농촌지역 결혼이주 여성들이 지역사회와 한국사회에 잘 적응하여 자녀들을 잘 양육할 수 있는 기틀을 지역사회와 한국사회는 제도적으로 잘 마련하며 또한 기초 프로그램을 더욱 활성화 시켜야 할 것이다.

주요어: 농촌지역, 결혼이주여성, 한국생활 경험

\* 교신저자(이현심) 전화: 02-3470-5274; e-mail: [sim7173@hanmail.net](mailto:sim7173@hanmail.net)  
135-090) 서울시 강남구 삼성동 37-18 서울벤처대학원 대학교

## 1. 서론

급변하고 있는 21세기는 국제화, 지구촌화, 세계화, 개방화의 물결 속에 하나의 생활권으로 변화되어 국가 간의 정치, 경제, 문화, 사회참여 등 활동의 자리는 시·공간을 초월하여 가상의 세계를 넘나들고 있다. 이러한 흐름 속에 국가와 인종의 경계를 가로질러 서로 다른 국적, 인종, 성별, 계급, 문화적 상징을 가진 개인들이 밀접한 교류를 가지면서 특히 결혼까지 확대되고 있는 실정이다. 국제결혼 당사자들은 문화와 언어, 생활관습, 가족관계, 일상 등에 관하여 서로가 적응하기 위하여 상당한 노력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존재로서 인정받지 못한 채 심리적으로 위축을 받고, 사회활동 및 생활적응에도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 (Adams, 1990). 이러한 세계화의 변화 속에서 한국도 예외 없이 다문화사회 속에 벌써 진입되어 있고 그 속도는 점점 빨라지고 있다.

우리나라는 1990년대 들어서면서 외국인 노동자를 중심으로 다문화이주자들이 본격적으로 유입되기 시작되어 2000년대에는 국제결혼자의 증가로 다문화 이주자는 2008년 초에 이미 전체 인구의 2%를 넘어 섰다. 특히 농어촌 총각들의 국제결혼이 급증하면서 한국으로 오는 결혼이주여성들의 숫자가 점점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

출신국가를 살펴보면 이전에는 일본과 중국이 다수를 이루었으나, 2000년 이후부터는 베트남, 필리핀, 러시아, 태국, 몽골, 우즈베키스탄 등 국가도 다양화 되고 있다. 통계청 “2009년도 혼인 통계결과”에 따르면, 2009년 외국인과 혼인은 33,300건으로 2008년 36,204건에 비해 2,904건 감소하였으나, 2000년 이후 외국인과의 결혼 비율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2009년도 국제결혼 중 한국남성과 외국여성과의 혼인은 총 25,142건으로 국제결혼의 75.5%, 한국여성과 외국남성의 혼인은 총 8,158건으로 24.5%를 차지하고 있다(통계청, 2010).

한국은 2010년 국내 체류외국인이 약 120만 명으로 이는 전체 국민의 약 2.5%에 해당되는 수치이며, 2020년에는 외국인 비율이 5%를 넘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법무부, 2010). 이와 같은 변화와 흐름은 “다문화”에 대한 수많은 담론을 낳고 있다. 각계각층에서 다문화를 화두로 삼고 있으며, 다양한 연구를 진행함과 동시에 많은 결과물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일민족, 단일문화를 자랑스럽게 여기던 기존의 한국적 가치와 문화들을 어떻게 극복해 나가야 할 것인지, 국민개개인의 다문화 인식을 어떻게 전환시켜 나갈 것인지 등에 대한 의견이 분분한 상태이며 정확한 방향을 잡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Martiniello(2002)는 대부분의 현대사회에서 서로 다른 민족문화집단에 소속된다고 주장하면서 개인과 집단은 원하든 그렇지 않든 공존할 수밖에 없으며 또한 아무리 동질적 문화를 위해 노력한다 해도 사회는 계속해서 다양화될 것이라고 했다.

한편, 후기 산업사회의 중요한 특징 중의 하나는 도시화에 있다. 글로벌 시대 도시는 초국가적인 정보, 자본, 하이테크놀로지, 문화, 소비, 여가와 나아가 네트워크의 중심적 이미지를 지니고 있으나 농촌은 도시의 주변화 된 인구를 빠르게 흡입하는 공간이 되고 있다(김은실, 김정선, 2007). 특히 일부 농촌지역은 지역경제의 낙후성과 여성의 도시 진출로 성비의 불균형으로 초래하여 남성의 결혼문제는 농촌지역사회의 내부적으로 해결될 수 없는 구조적 한계에 직면하게 되었다. 그 해결책으로써 외국인 여성과의 결혼을 주선하게 되었고 ‘농촌총각 장가보내기’ 프로젝트를 실시하여 국제결혼을 장려하는 상황에 이르렀다(박재규, 2006).

결혼이주여성들 대부분은 결혼중개업소를 통해 이루어지면서 한국어를 배울 기회조차 없이 한두 차례의 만남으로 결혼을 하고 한국에 들어온 경우가 대부분이다. 선행연구들에서 공통적으로 지적되는 결혼이주여성들의 어려움은 문화적 차이 및 의사소통의 어려움에서 오는 이질감,

소외감 그리고 남편과 시댁식구와의 갈등, 가정폭력, 아내에 대한 남편의 행동통제, 경제적 어려움, 자녀대한 교육문제, 법적 신분의 불안정과 국적법과 같은 제도사의 차별, 사회적 지지망의 부족, 한국 사회시스템의 정보 부족, 사회참여 기회의 불균형 등을 언급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선행연구들은 결혼이주여성들의 지역성을 고려하지 않고 연구된 결과들이다. 결혼이주여성들은 이주와 동시에 거주지역이 결정된다. 지역사회의 전반적인 여건은 여성과 가족의 삶을 규정하는데 상당한 영향력을 미치게 된다. 또한 도시지역에 비해 농촌지역은 문화, 복지시설, 교육서비스 등 여러 가지 생활시설의 접근성이 어려워 농촌지역 결혼이주여성들의 자조모임이나 연대모임의 활성화 및 한국생활 정착을 위하여 그들의 실생활에서 일어나고 있는 어려움에 대한 실태를 파악해야 하는 연구가 절실하다.

본 연구는 농촌지역의 결혼이주여성들이 지역사회에 잘 정착하여 한국 사회에 건강하게 잘 적응할 수 있도록 하며, 다문화 가정에 대한 체계적 지원과 사회의

따뜻한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연구의 목적이다. 따라서 이들이 한국생활의 경험에서 어떻게 인식을 갖고 있는지,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를 파악하고자 한다.

## 1.1. 연구문제

- 1.1.1. 농촌지역 결혼이주여성들의 생활만족도에 대한 인식은 어떠한가?
- 1.1.2. 농촌지역 결혼이주여성들의 결혼생활 만족도에 대한 인식은 어떠한가?
- 1.1.3. 농촌지역 결혼이주여성들의 자녀교육에 대한 인식은 어떠한가?
- 1.1.4. 농촌지역 결혼이주여성들의 사회생활에 대한 인식은 어떠한가?

### 1.1.5. 농촌지역 결혼이주여성들의 한국사회 적응에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 2. 이론적 배경

### 2.1. 한국의 다문화사회 변화 요인

한국의 다문화사회 변화 상황 요인을 살펴보면 국제적 요인과 국내적 요인으로 나뉘볼 수 있다. 먼저 국제적 요인은 21세기의 특징과 관련하여 인구의 이동과 관계가 있다. 주로 경제적으로 취약한 국가의 여성들이 이주가 심화되는 현상으로 인해 ‘이주의 여성화(feminization of migration)’라고 명하기도 한다(Stalker, 2004). 두번째로 세계화(globalization)의 추세 때문이다. 이는 과학 기술의 경이로운 발전이 가져다 준 교통·통신의 발달 등과 관련이 깊다. 다음으로 국내적 요인을 분석하면 첫째는 한국의 급속한 경제 성장이 원인이다. 둘째는 저출산 문제와 또한 급속하게 진행되는 고령화 사회에 대한국가적 위기상황과 연관이 있다(통계청, 2010). 셋째는 오랫동안 남아 선호사상으로 인해 생긴 남·여 성비의 불균형의 문제와 관계가 있다. 넷째는 국가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외국인의 활발한 투자환경을 조성하고 우수인재 유치를 위한 노력과 관계가 있다. 다섯째, 86아시안 게임과 88올림픽의 성공적인 개최 등으로 인해서국가적인 위상이 높아짐과 동시에 동남아시아 지역의 한류 열풍도 한 몫을 했다고 본다(신윤희, 2002). 이러한 분위기가 동아시아 지역의 사람들이 한국을 동경하는 나라가 되도록 이끌어 주었다(서은숙, 2009).

## 2.2. 결혼이주여성

결혼이주여성은 국제결혼으로 한국의 남성과 결혼한 외국여성을 말한다. 국제결혼이란 “국적을 달리하는 남녀가 결혼하는 일”이라고 사전에서는 정의하고 있다. 결국 국제결혼이란 서로 다른 종족 간에 이루어진 가족공동체를 의미하며, 다른 말로 이중문화가정이라고 부른다(Berry, 1997). 우리나라의 결혼이주여성들은 대부분 아시아계 여성으로 2005년 이후로 결혼이주여성 전체의 95.8%를 차지하고 있다. 이들의 출신 국가는 주로 개발도상국으로 경제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결혼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리고 현재의 상황은 국적도 다양하게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이들은 2000년 초에는 중국, 일본, 필리핀 출신이 다수였으나 최근에는 베트남, 캄보디아, 몽골, 네팔, 우즈베키스탄, 러시아 출신 등으로 다양한국가의 여성들이 유입되고 있다.

## 2.3. 한국의 다문화가정의 문제

우리나라의 결혼이주여성들은 살아가기에는 많은 어려움을 갖고 있다. 결혼이주여성 대부분이 상업적 중개로 결혼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배우 및 시댁가족들이 동등한 관계가 아닌 매매혼으로 인식하는 경우가 많고, 이들을 소유물로 인식하면서 복종, 순응, 동조 등을 강요하면서 배우자로서의 상호평등한 관계가 아니라 명령 상하관계로 형성되어 많은 갈등이 유발되고 있다(강희원, 2006).

충청남도의 “여성결혼이민자 가족 실태조사”에서 한국생활에서 가장 힘든 점은 언어문제가 26.7%, 문화차이 18.6%, 외로움 12.4%, 자녀문제 10%, 경제문제 9.4%, 음식 및 기후가 4.3%로 나타났다(충청남도, 2009).

한국염의 연구에서 결혼이주여성들의 한국생활적응에서 가장 큰 어려움은 의사소통 36.2%, 자녀교육문제 25.7%, 문화적 갈등이 27.9%로 의사소통문제가 심각한 수준에 있다고 하였다(한국염, 2009) 이와 같이 의사소통의 문제로 발생하는 2차적 문제는 자녀교육의 어려움 25.7%, 가족 및 이웃과의 교류부족 36.2%, 정보획득의 어려움 20.1%, 민원서류 등 발급 어려움 7.8%, 무응답 10.3%로 나타났다(한국염, 2009).

정진경은 결혼이주여성들이 지역사회 주민으로 참여하고 싶어도 언어의 장벽으로 관계망 확장이 어려우며,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 문제해결을 위한 절차적인 것과 행정기관에 신고하는 것의 어려움과 공권력의 도움을 받을 기회가 부족할 수밖에 없는 문제점에 직면하게 된다고 하였다(정진경, 2007).

한편, 결혼이주여성들은 본국에 있는 가족의 생계와 새로운 삶을 개척하여 미래의 꿈을 실현하고자 국제결혼을 선택하여 한국에 와보니 남편들이 대부분 경제적 불안한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이다. 즉 결혼 중개업자들의 허위와 과장된 정보로 실제 상황이 판이하게 나타난다는 것이다. 경제생활 수준에 대한 평가에서 중간층 56.3%, 하층 및 최하층 39.9%로 응답하였다(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 2010).

경제적 문제는 가정문제의 원인과 자녀양육에도 문제가 되고 있으며, 대부분의 결혼이주 여성들은 경제적 어려움을 안고 살아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한국남성들의 알코올 중독, 이상 성행위자, 습관화된 폭력 등으로 결혼이주여성들이 외부와의 단절, 성적학대, 가정폭력 등으로 심각한 수준에 이르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보건복지가족부, 2005)

조한숙(2009)의 연구에서 다문화가정의 자녀들은 피부색이 다르고 얼굴 생김새가 다르다는 이유로 집단따돌림을 당하고 학습부진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하였다. 또한 가족들의 무시언사가 자녀들도 엄마를 기피하고 창피스러워하며 이웃과의 단절로 자녀의 사회성이 결여됨은 물

론 한국인으로 대우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정체성의 혼란을 야기하기도 한다는 것이다. 따돌림을 당하는 이유에 대해서 엄마가 외국인이어서 34.1%, 의사소통이 잘 안되어서 20.7%, 다른 아이들이 싫어해서 15.9%, 태도나 행동이 달라서 13.4%, 외모가 달라서 4.9%, 기타 11%로 나타났다(설동훈, 2005).

결혼이주여성들의 인권침해 문제에 대하여 여성단체와 이주여성단체의 통계에 의하면 성폭력에 대해서 66.7%가 보상을 받지 못했으며, 70.6%는 성폭력 가해자가 처벌대상이 된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효율적으로 대처하지 못하고 있었으며, 피해여성의 72.2%는 성폭력 피해자가 도움을 청할 수 있는 상담소나 피난처가 필요하다고 하였다(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08).

이주여성 긴급지원센터(2009)의 상담 내역을 보면 주로 가정폭력, 부부 및 가족갈등, 생활문제, 법률문제 등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었다.

### 3. 연구방법

#### 3.1. 연구대상

본 연구는 한국의 농촌남성과 결혼을 하여 농촌지역에 거주하는 결혼이주여성을 대상으로 조사를 하였다. 지역은 경기도와 인천에 거주하는 각국나라의 출신 여성으로 자기기입 방식으로 설문조사를 하였다. 설문지는 직접 단체를 방문을 하여 관계기관 실무자의 협조를 얻어 영어, 베트남어, 중국어, 일본어, 태국어 등의 설문지를 배부하여 조사를 하였다. 단체방문을 하여 102부를 수거하였으나 분석이 불가능한 16부를 제외하고 86부를 채택하여 통계분석을 실시하였다. 설문조사는 2012년 9월 10



일부터 10월 20일까지 실시하였다. 설문조사에서 솔직한 응답을 유도하기 위하여 무기명으로 하였으며 문항들은 거의 객관식 문항으로 채택하였다.

### 3.2. 자료 분석의 방법

본 연구의 자료는 SAS(Statistical Analysis System) 활용하여 첫째, 인구 통계적 일반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빈도수와 백분율을 산출하는 빈도 분석을 실시하였다. 둘째, 연구대상자들의 다문화가정에 대한 인식이 어떠한지를 확인하기 위해 빈도 분석, 백분율, 평균, 표준편차 등의 기술 통계방법을 사용하였다. 셋째, 생활만족에 관한 인식, 결혼생활만족도 인식, 자녀교육에 대한 인식, 사회생활에 대한 인식, 한국사회 적응에 관한 인식을 알아보기 위하여 빈도분석, 교차분석, 일원변량분석을 사용하였다.

## 4. 연구결과

### 4.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조사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은 거주지, 연령별, 국적별, 자녀수, 학력, 한국어 수준, 결혼경로, 결혼기간, 가정상태, 가족형태, 직업 등으로 구분하여 조사하였고 이에 대한 분석결과는 <표 1>과 같다. 연령별로는 20대 38.37%, 30대 47.76%, 40대 13.95%순이며, 출신국가는 중국 43.02%, 베트남 33.72%, 필리핀 10.46%, 몽골 3.48%, 우즈베키스탄 3.48%, 대만 2.32%, 일본 2.32%, 인도네시아 1.16% 순이었다. 결혼기간은 평균 5.32년으로 나타났고, 자녀의 수는 없음이 9.30%, 1명 19.76%, 2명 53.48%, 3명 10.46%, 4명 이상 6.97%였고, 최종 학력

은 중졸 33.72%, 고졸 43.02%, 대졸 23.25%로 대부분 중졸과 고졸 출신이 대다수였다. 한국어 의사소통 수준은 매우 잘함 2.32%, 잘함 36.04%, 보통 46.51%, 못함 15.11% 순이며, 결혼경로는 종교단체 주선 15.11%, 결혼중개업체 47.67%, 직접 만남 5.81%, 친척 및 지인 소개 30.23%, 행정기관 주선 1.16% 이었다. 혼인 상태는 결혼유지 94.18%, 별거 2.32%, 이혼 2.32%, 사별 1.16%순이었고, 가족형태로는 부부 3.48%, 부부+자녀 43.02%, 시부모+부부+자녀 39.53%, 시부모+부부 5.81%, 시부모+부부+자녀+시댁식구 2.32%, 본인+자녀 5.81%로 부부와 자녀의 형태가 제일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시부모+부부+자녀의 가족 형태가 많았다. 본인의 직업은 전업주부 32.55%, 농업 41.86%, 상업 13.95% 사무직 4.65% 기타 6.97% 나타났다. 대부분 농업이 주를 이루고 그 다음으로 전업주부였다.

〈표 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N=86명)

구분		빈도수	백분율(%)
나이	20대	33	38.37
	30대	41	47.67
	40대	12	13.95
국적	중국	37	43.02
	베트남	29	33.72
	필리핀	9	10.46
	몽골	3	3.48
	우즈베키스탄	3	3.48
	대만	2	2.32
	일본	2	2.32
	인도네시아	1	1.16
자녀 수	없음	8	9.30
	1명	17	19.76

자녀 수	2명	46	53.48
	3명	9	10.46
	4명 이상	6	6.97
학력	중졸	29	33.72
	고졸	37	43.02
	대졸	20	23.25
	대학원 졸	0	0.00
한국어 수준	매우 잘함	2	2.32
	잘함	31	36.04
	보통	40	46.51
	못함	13	15.11
결혼 경로	종교단체 주선	13	15.11
	결혼중개업체	41	47.67
	직접 만남	5	5.81
	친척·지인소개	26	30.23
	행정기관 주선	1	1.16
혼인 상태	결혼 유지	81	94.18
	별거	2	2.32
	이혼	2	2.32
	사별	1	1.16
가족 형태	부부	3	3.48
	부부+자녀	37	43.02
	시부모+부부+자녀	34	39.53
	시부모+부부	5	5.81
	시부모+부부+자녀+시댁식구	2	2.32
	본인+자녀	5	5.81
직업	전업주부	28	32.55
	농업	36	41.86
	상업	12	13.95
	사무직	4	4.65
	기타	6	6.97

### 4.2. 생활의 만족에 관한 인식

참가자들의 생활의 만족도의 차이가 있는지 분석한 결과  $\chi^2_{(9)} = 88.72$ 로 유의수준 1%하에 유의함을 알 수 있다. 5보다 작은 기대빈도를 가지고 있는 셀이 있어 Fisher의 정확 검정을 시행한 결과  $P < 0.0001$ 로 유의한 결과임을 알 수 있다. 결과적으로 매우만족 15.11%, 만족 44.18%, 보통 36.04%, 불만족 4.65%로 나타났는데 이는 절반 이상의 이주여성들이 자신들의 생활에 만족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2〉 생활의 만족도(N=86)

국적	빈도 (%)	매우 만족	만족	보통	불만족	매우 불만족	총합
중국	빈도	1	13	21	2	0	37
	(%)	2.70	35.13	56.75	5.40	0	100
베트남	빈도	11	15	2	1	0	29
	(%)	37.93	51.72	6.89	3.44	0	100
필리핀	빈도	1	6	2	0	0	9
	(%)	11.11	66.66	22.22	0	0	100
기타	빈도	0	4	6	1	0	11
	(%)	0	36.36	54.54	9.09	0	100
총합 (%)		13 15.11	38 44.18	31 36.04	4 4.65	0 0.00	86 100

  

국적	빈도	평균	표준편차	변량분석결과	사후검증		
중국	37	3.36	0.59	$df(3,200)$ $F = 33.51^{***}$	c		
베트남	29	4.27	0.68				a
필리핀	9	3.87	0.46			b	
기타	11	3.26	0.62		c		
전체	86	3.72	0.75				

$\chi^2_{(9)} = 88.72^{***}$ ,  $***P < 0.01$ , Fisher 정확검정 ( $P < .0001$ )

### 4.3. 결혼생활 만족에 관한 인식

#### 4.3.1. 남편과의 관계 만족도

연구 참가자들의 남편과의 관계 만족도의 차이가 있는지 분석한 결과  $\chi^2_{(9)} = 16.62^*$  으로 유의수준 1%하에 유의한 차이를 알 수 있다. 5보다 작은 기대빈도를 가지고 있는 셀이 있어 Fisher의 정확 검정을 시행한 결과  $P = .0334$ 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결과적으로 매우만족 4.65%, 만족 76.74%, 보통 12.79%, 불만족 5.81%로 나타났음을 볼 때 대부분의 이주여성들이 남편과의 관계에 만족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3〉 남편관계 만족도 (N=86)

국적	빈도 (%)	매우만족	만족	보통	불만족	매우 불만족	총합
중국	빈도	1	29	5	2	0	37
	(%)	2.72	78.37	13.51	5.40	0	100
베트남	빈도	2	22	3	2	0	29
	(%)	6.89	75.86	10.34	6.89	0	100
필리핀	빈도	1	6	2	0	0	9
	(%)	11.11	66.66	22.22	0	0	100
기타	빈도	0	9	1	1	0	11
	(%)	0	81.81	9.09	9.09	0	100
총합 (%)		4 4.65	66 76.74	11 12.79	5 5.81	0 0.00	86 100

국적	빈도	평균	표준편차	변량분석결과	사후검증
중국	37	3.80	0.57	df(3, 199) F = 1.66	a
베트남	29	4.00	0.61		a
필리핀	9	3.96	0.47		a
기타	11	3.87	0.46		a
전체	86	3.90	0.57		

$\chi^2_{(9)} = 16.62^*$ , \*P < 0.10, Fisher 정확검정 (P = .0334)

### 4.3.2. 결혼유지 이유

연구 참가자들의 결혼 유지에 관한 조사에서 현재 결혼생활을 유지하지 않는 참가자들을 제외하고 분석한 결과는  $\chi^2_{(6)} = 20.36^{***}$  으로 유의수준 1%하에 유의한 차이를 알 수 있다. 결과적으로 남편사랑 39.50%, 자녀에 대한 희망 17.28%, 미래에 대한 기대 43.21%로 나타났는데, 이로 보아 이주여성들은 한국의 생활에서 미래에 대한 부푼 기대와 남편에 대한 사랑을 가지고 결혼생활을 유지하는 것으로 알 수 있다.

〈표 4〉 결혼유지 이유(N=81)

국적	빈도 (%)	남편에 대한 사랑	자녀에 대한 희망	친정부모	경제적 여유	미래에 대한 기대	기타	총합
중국	n	10	8	0	0	18	0	36
	(%)	27.78	22.22	0	0	50.00	0	100
베트남	n	15	4	0	0	9	0	28
	(%)	53.57	14.28	0	0	32.14	0	100
필리핀	n	2	1	0	0	5	0	8
	(%)	25.00	12.50	0	0	62.50	0	100
기타	n	5	1	0	0	3	0	9
	(%)	55.55	11.11	0	0	33.33	0	100
총합		32 39.50	14 17.28	0 0.0	0 0.00	35 43.21	0 0.0	81 100

$\chi^2_{(6)} = 20.36^{***}$ , \*\*\*P < 0.01

#### 4.4. 자녀 교육에 대한 인식

##### 4.4.1. 자녀교육의 가장 어려운 점

연구 참가자들의 자녀교육에 대한 조사에서 자녀가 없거나, 아직 어려서 교육과정에 참여하지 않는 자들을 제외하고 교육의 가장 어려운 점에 있어 차이가 있는지 분석한 결과는 다음 <표 5>과 같이 나타났다.  $\chi^2_{(18)} = 53.87^{***}$ , Fisher의 정확 검정을 시행한 결과  $P < 0.001$ 로 유의한 결과를 나타내고 있으며, 학습지도 58.90%, 숙제지도 26.02% 순으로 어려움을 나타내었다.

<표 5> 자녀 교육의 가장 어려운 점 (N=73)

국적	중국(32)	베트남(24)	필리핀(8)	기타(9)	총합(73)
알림장 챙기기	2	0	0	1	3
	6.25	0.00	0.00	11.11	4.11
숙제 지도하기	5	5	5	4	19
	15.62	20.00	62.50	44.44	26.02
학습지도 (예습, 복습)	21	18	2	2	43
	65.62	75.00	25.00	22.22	58.90
교육비 마련	1	0	0	1	2
	3.12	0.00	0.00	11.11	2.74
생활 부적응 (반항, 따돌림 등교거부)	2	1	1	1	5
	6.25	5.00	12.50	11.11	6.84
학습부진	1	0	0	0	1
	3.12	0.00	0.00	0.00	1.37

$\chi^2_{(18)} = 53.87^{***}$ , \*\*\* $P < 0.01$ , Fisher 정확검정 ( $P < .0001$ ).

4.4.2. 자녀에게 가장 필요한 지원

연구 참가자들의 자녀에게 가장 필요한 지원에 관한 조사에서 아직 자녀가 없는 참가자를 제외한 분석의 결과는  $\chi^2_{(15)} = 50.76^{***}$ , Fisher의 정확 검정을 시행한 결과  $P < 0.0001$ 로 유의한 결과를 나타내고 있으며, 기초교과지도 44.87%, 한국어교육 21.79%, 친구사귀기 17.95% 순으로 응답하였다.

〈표 6〉 자녀에게 가장 필요한 지원(N=78)

국적	중국(34)	베트남(25)	필리핀(9)	기타(10)	총합
없음	1	0	0	1	2
	2.94	0.00	0.00	10.00	2.56
한국어 교육	2	8	5	2	17
	5.88	32.00	55.55	20.00	21.79
기초교과 지도	19	13	2	1	35
	55.88	52.00	22.22	10.00	44.87
친구사귀기	8	2	1	3	14
	23.52	8.00	11.11	30.00	17.95
정보, 심리상담	1	1	0	1	3
	2.94	4.00	0.00	10.00	3.85
진학지도	2	1	1	0	4
	5.88	4.00	11.11	0.00	5.13
교육비 지원	1	0	0	2	3
	2.94	0.00	0.00	20.00	3.85

$\chi^2_{(15)} = 50.76^{***}$ ,  $***P < 0.01$ , Fisher 정확검정 ( $P < .0001$ ).

4.4.3. 자녀교육의 문제해결 방법

연구 참가자들 중 아직 자녀가 없거나, 자녀교육에 참가하지 않는 자를 제외한 결과는 다음 표 〈7〉와 같다. 대부분이 다문화가정자녀 지원



26.03%에 대한 일관성을 제시하였으며, 방과 후 학교 활성화 21.91%, 언어소통 20.55%, 경제적 지원 13.68%, 정체성 극복교육 12.32%, 순으로 자녀교육 문제 방법을 제시하였다.

〈표 7〉 자녀교육의 문제해결 방법(N=73)

	중국(32)	베트남(24)	필리핀(8)	기타(9)	총합
경제적 지원	5	3	1	1	10
	15.62	12.50	12.50	11.11	13.69
정체성 교육	3	2	2	2	9
	9.37	8.33	25.00	22.22	12.32
교사들의 다문화이해	1	1	0	0	2
	3.12	4.16	0.00	0.00	2.74
방과 후 학교 교육 활성화	8	4	2	2	16
	25.00	16.67	25.00	22.22	21.91
프로그램 개발	0	1	0	1	2
	0.00	4.16	0.00	11.11	2.74
다문화가정 자녀 지원 일관성	8	7	2	2	19
	25.00	29.17	25.00	22.22	26.03
언어소통	7	6	1	1	15
	21.88	25.00	12.5	11.11	20.55

#### 4.5. 사회생활에 관한 인식

##### 4.5.1. 한국생활의 힘든 점

연구 참가자들의 한국생활의 힘든 점의 차이가 있는지 분석한 결과  $\chi^2_{(24)} = 92.95^{***}$ 으로 유의수준 1%하에 유의한 차이를 알 수 있다. 5보다 작은 기대빈도를 가지고 있는 셀이 있어 Fisher의 정확 검정을 시행한

결과  $P < .0001$ 로 유의한 결과임을 알 수 있었다. 결과를 보면 언어문제 31.39%, 자녀양육 19.77%, 경제적 어려움 19.77%, 관습 및 문화차이 11.62%, 편견과 차별 6.98%, 가족 간의 갈등 5.81% 순으로 응답하였다.

〈표 8〉 한국생활의 힘든 점(N=86)

국적	중국(37)	베트남(29)	필리핀(9)	기타(11)	총합 (86)
외로움	2	1	0	0	3
	5.40	3.45	0.00	0.00	3.48
가족 간의 갈등	2	1	1	1	5
	5.40	3.45	11.11	9.09	5.81
자녀양육	6	7	2	2	17
	16.21	24.13	22.22	18.18	19.77
경제적 어려움	15	1	0	1	17
	40.54	3.45	0.00	9.09	19.77
언어문제	3	16	4	4	27
	8.10	55.17	44.44	36.36	31.39
생활, 관습 문화차이	7	2	0	1	10
	18.91	6.89	0.00	9.09	11.62
음식	1	0	0	0	1
	2.73	0.00	0.00	0.00	1.16
차별, 편견	1	1	2	2	6
	2.73	3.45	22.22	18.18	6.98

$\chi^2_{(6)} = 32.21^{***}$ ,  $***P < 0.01$ , Fisher 정확검정( $P < .0001$ )

#### 4.5.2. 어려울 때 의논하는 사람

연구 참가자들의 어려울 때 의논하는 사람의 차이가 있는지 분석한 결과  $\chi^2_{(6)} = 32.21^{***}$  으로 유의수준 1%하에 유의한 차이를 알 수 있다. 5보다 작은 기대빈도를 가지고 있는 셀이 있어 Fisher의 정확 검정을 시행

한 결과  $P < .0001$ 로 유의한 결과임을 알 수 있었다. 결과적으로 한국인 50.00%, 모국인 46.51%, 없음이 3.49%로 나타났다. 특히 필리핀, 베트남인은 같은 모국인과 의논을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9〉 어려울 때 의논하는 사람(N=86)

국적	빈도 (%)	모국인	한국인	기타 외국인	없음	총합
중국	빈도	15	20	0	2	37
	(%)	40.54	54.05	0.00	5.40	100.00
베트남	빈도	17	12	0	0	29
	(%)	58.62	41.37	0.00	0.00	100.00
필리핀	빈도	6	2	0	1	9
	(%)	66.67	22.22	0.00	11.11	100.00
기타	빈도	2	9	0	0	11
	(%)	18.18	81.81	0.00	0.00	100.00
총합 (%)		40 46.51	43 50.00	0 0.00	3 3.49	86 100

$\chi^2_{(6)} = 32.21^{***}$ ,  $***P < 0.01$ , Fisher 정확검정 ( $P < .0001$ )

#### 4.5.3. 자주 참여하는 모임이나 활동

연구 참가자들이 자주 참여하는 모임이나 활동의 차이가 있는지 분석한 결과  $\chi^2_{(6)} = 32.21^{***}$  으로 유의수준 1%하에 유의한 차이를 알 수 있다. 5보다 작은 기대빈도를 가지고 있는 셀이 있어 Fisher의 정확 검정을 시행한 결과  $P < .0001$ 로 유의한 결과임을 알 수 있었다. 종교단체 41.86%, 모국친구 38.37%, 남편가족, 친척모임 15.12%, 없음 4.65%로 나타났는데, 이는 많은 수의 이주여성들이 종교생활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10〉 자주 참여하는 모임이나 활동(N=86)

국적	빈도 (%)	남편가족 친척모임	종교 단체	자녀 학교의 학부모 모임	모국인 친구 모임	없음	기타	총합
중국	n	3	19	0	13	2	0	37
	(%)	8.10	51.35	0.00	35.13	5.40	0	100
베트남	n	5	8	0	15	1	0	29
	(%)	17.24	27.56	0.00	51.72	3.45	0	100
필리핀	n	1	4	0	4	0	0	9
	(%)	11.11	44.44	0.00	44.44	0.00	0.00	100
기타	n	4	5	0	1	1	0	11
	(%)	36.36	45.45	0.00	9.09	9.09	0	100
총합 (%)	n (%)	13 (15.12)	36 (41.86)	0 (0.00)	33 (38.37)	4 (4.65)	0 (0.00)	86 (100)

$\chi^2_{(6)} = 32.21^{***}$ ,  $***P < 0.01$ , Fisher 정확검정 ( $P < .0001$ )

#### 4.5.4. 차별받은 장소

연구 참가자들의 차별받은 장소가 있는지 분석한 결과는 〈표 11〉과 같이 나타났다.  $\chi^2_{(15)} = 129.80^{***}$ 으로 유의수준 1%하에 유의한 차이를 알 수 있다. 5보다 작은 기대빈도를 가지고 있는 셀이 있어 Fisher의 정확검정을 시행한 결과  $P < .0001$ 로 유의한 결과임을 알 수 있었다. 결과를 보면 상점, 음식점, 은행 등과 같은 공공장소 46.51%, 공공기관 17.44%, 거리나 동네 16.27%, 직장, 일터 11.62%, 집주인이나 부동산 중개업소 4.65% 로 응답하였다.

〈표 11〉 차별받은 장소(N=86)

국적	빈도 (%)	거리 동네	상점 음식점 은행 등	공공 기관	직장 일터	집주인 부동산 중개업소 등	기타	총합
중국	n	2	22	6	2	3	2	37
	(%)	5.40	59.46	16.21	5.40	8.10	5.40	100
베트남	n	11	12	0	6	0	0	29
	(%)	37.93	41.37	0.00	20.69	0.00	0.00	100
필리핀	n	1	4	1	2	0	1	9
	(%)	11.11	44.44	11.11	22.22	0	11.11	100
기타	n	0	2	8	0	1	0	11
	(%)	0.00	18.18	72.72	0	9.09	0	100
총합 (%)	n (%)	14 16.27	40 46.51	15 17.44	10 11.62	4 4.65	3 3.49	86 100

4.5.5. 한국사회에 적응에 가장 필요한 도움

연구 참가자들의 한국 사회에 적응하는데 가장 필요한 도움이 무엇인지(표 12)에 표시하였다. 언어소통 19.76%, 자녀교육 19.76%, 지역사회 적응 19.76%, 직장 내 문제 17.44%, 정보 및 상담제공 15.11%, 한국인과 우호적 관계 6.98% 순으로 응답하였다. 언어소통, 자녀교육, 지역사회 적응 문제는 우선순위가 없이 가장 필요한 도움으로 나타났다.

〈표 12〉 한국사회에 적응에 가장 필요한 도움(N=86)

국적	중국(37)	베트남(29)	필리핀(9)	기타(11)	총합
언어소통	6	6	1	4	17
	16.21	20.69	11.11	36.36	19.76
건강문제	1	0	0	0	1
	2.70	0.00	0.00	0.00	1.16
정보 및 상담제공	4	7	1	1	13
	10.81	24.13	11.11	9.09	15.11
자녀교육	9	3	3	2	17
	24.32	10.34	33.33	18.18	19.77
한국인과 우호관계	2	2	1	1	6
	5.40	6.90	11.11	9.09	6.98
지역사회 적응문제	8	6	2	1	17
	21.62	20.69	22.22	9.09	19.77
직업, 직장 내 문제	7	5	1	2	15
	18.92	17.24	11.11	18.18	17.44

## 5. 결론

본 연구에서 설정한 연구문제 중심으로 결혼이주여성들의 한국생활 인식을 분석하면서 확인하고 싶었던 사항은 국적별 현황, 한국어 수준, 남편과의 결혼만족도, 현재생활의 만족도, 자녀교육의 어려운 점, 자녀교육 문제 해결방법, 한국생활의 힘든 점, 한국생활 적응을 위해 가장 필요한 도움 등 이었다. 이것을 빈도분석, 교차분석, 일원분류 분산분석을 이용하여 분석한 결과를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결혼이주여성들은 본국에서의 모든 삶을 뒤로한 채 이국땅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 코리안 드림을 꿈꾸며 온 사람이든 그렇지 않은 간에 적어도 그들은 현재보다 더 나은 삶을 꿈꾸고 왔다. 그러나 그들은 정착 타국에서의 삶을 살기 위해서 얼마나 고민하고 자신의 새로운 삶을 위하여 사전 준비하였는가에 대한 질문은 스스로 해보지 않았다. 적어도 자신이 가서 살아야 할 나라의 문화나 풍습에 대해 약간의 지식은 가지고 있어야 했고 간단한 의사소통 준비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어느 날 갑자기 선보고 얼마 지나지 않아 결혼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을 보면 타국에서의 녹록치 않은 삶은 예견 할 수 있다(이현주, 2009).

본 연구에서 결혼이주여성들의 출신 국가를 분석한 결과, 다양한 출신 국가들로 구성되어 있었으나 중국, 베트남, 필리핀 순으로 많았다. 이는 문헌연구 및 선행연구(류순희, 2010; 정혜은, 2009; 홍소연, 2007)의 내용과 같은 결과였다.

한편, 결혼이주여성들의 한국어 수준을 분석한 결과, 국적별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 출신의 여성이 한국어를 제일 잘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베트남 출신 여성들이 가장 한국어 수준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결혼이주여성들이 결혼하여 국내에 거주한 기간과 밀접한 관련성을 갖고 있는데 중국 여성들이 결혼하여 국내에 거주한 횟수가 제일 길고 베트남 여성들이 제일 짧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이것은 중국을 제외한 결혼이주여성들의 한국어 교육이 무엇보다도 절실하게 필요하다는 것으로 유추 할 수 있다.

삶의 만족을 자신의 현재 삶에 대하여 얼마나 만족하는가를 개인 자신이 인지하고 주관적으로 평가하는 것으로 정의했을 때, 이 정의에 대한 해석은 개인의 다양성이 존재하는 만큼이나 다양하다. 즉 개인이 처해있는 상황에 따라서 그리고 현재 삶의 비중을 어디에 두고 있는가에 따라서 삶의 만족도는 달라질 것이다. 결혼이주여성들의 결혼생활은 새로운 가족들과의 친밀감 형성과 여기에서 오는 다양한 형태의 고충들이

있다. 시부모 및 다른 가족들과 새로운 관계 만들기, 지역사회 구성원들과의 유대강화를 위한 노력, 새로운 가족의 탄생과 이들의 양육과 교육으로 인한 부담감이 있다(정주연, 2008).

본 연구에서 남편과의 결혼생활 만족도를 분석한 결과, 국가별 정도의 차이는 있었지만 현재 남편과의 관계만족도는 대부분 만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결과는 문헌 연구에 나타난 다문화가정의 갈등의 문제가 아직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보아지는데, 그 이유는 아직 결혼생활의 기간이 짧기 때문이고 남편과의 문제를 밖으로 드러내려 하지 않는 동양적 사고 때문으로 사료된다.

결혼이주여성들은 자신들의 결혼 전과 결혼 후를 비교해 보면서 스스로 기대하고 스스로 실망하는 부분이 있을 것이다. 이들은 본국의 경제적 수준보다 더 나은 한국에서의 삶을 결정하는 순간, 막연하게나마 많은 기대를 하고 왔다. 그렇지만 현재 이들의 생활 만족도를 분석한 결과 국적별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이것은 선행연구(류순희, 2010; 유영은, 2006; 정기선, 2007)와 비슷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결혼생활을 유지하는 이유에서는 미래에 대한 기대, 남편사랑, 자녀에 대한 희망의 순서대로 나타났는데, 이로 보아 이주여성들은 한국의 생활에서 미래에 대한 부푼 기대와 남편에 대한 사랑을 가지고 결혼생활을 유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부분의 여성들이 결혼생활에 대한 미래의 기대와 남편의 사랑으로 결혼생활을 하는 것에 보편적으로 같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통계청의 국제결혼 통계(2011)를 보더라도 한국 사회는 이미 다문화 사회로 진입하였다. 다문화가정 자녀의 수도 급속히 증가하여 자연스럽게 취학 자녀가 점점 늘어나 학교에서의 교육문제, 또래 및 교사와의 관계형성에 대한 어려움 등이 드러나면서 우리 사회의 관심이 되고 있다(이현주, 2009).

본 연구에서 결혼이주여성들은 자신의 경우와 다르게 그들 자녀들이



학교에서 교사나 또래 관계에서 혹은 다른 가족 구성원들에게 차별을 받는다고 말하는 여성은 별로 없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자녀들의 정체성에 대해 걱정하는 결혼이주여성들은 필리핀, 기타 국적 외에는 그리 많지 않았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결혼이주여성들의 자녀들이 심리적 문제와 정체성 혼란을 경험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한 선행연구들(설동훈, 2007; 임형백, 2007; 한국염, 2004; 주정란, 2009)의 결과와 다소 차이가 있었지만 지역과 자녀들의 연령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을 것이라고 사료된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한국사회가 다문화가정의 결혼이주여성들과 그 자녀들에 대한 인식이 과거보다 많이 개선된 점을 들 수 있다. 그리고 정부 및 각 지자체, 기업, 유관단체들의 다문화가정에 대한 지원과 노력들이 나름대로 성과를 나타내고 있기 때문이라 여겨진다. 또한 학교를 비롯한 각종 교육기관에서 다문화가정의 자녀들에 대한 특별한 관심과 지원 때문으로 여겨진다. 각 시·도의 교육청은 다문화가정 아이들의 언어능력 배양과 문화 적응을 위해 많은 지원을 하고 있다(교육과학기술부, 2010). 예를 들면 다문화가정 자녀교육 지역중심학교 운영, 다문화가정 자녀교육 교육자료 개발, 다문화가정 방문교사제 운영, 다문화가족사랑 어울림마당 운영, 다문화가정 자녀 담당자 연수, 다문화가정 자녀교육 운영활동 사례집 발간, 한국어 및 다문화 이해교실 운영, 다문화가정 자녀 부모나라 체험, 다문화가정 자녀교육 지역협의체 운영 등이다. 그러나 편견과 차별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며 지역적으로 차이가 있을 수도 있음을 밝힌다.

결혼이주여성들의 자녀교육 인식을 살펴 본 결과, 자녀교육의 가장 어려운 점은 학습지도, 숙제지도의 순으로 어려움을 나타내었다. 자녀에게 가장 필요한 지원은 교과지도, 한국어교육, 친구사귀기 순으로 응답하였다. 자녀교육의 문제해결방법으로 연구 참가자들의 대부분이 다문화가정 자녀 지원에 대한 일관성을 제시하였으며, 방과 후 학교 교육 활성화, 의

사소통, 경제적 지원, 정체성 교육, 순으로 자녀교육의 문제 해결 방법을 제시하였다. 이와 같이 이들의 자녀교육의 문제점은 대부분 학습지도에 집중되어 있다. 이것은 한국어 이해 부족이나 한국문화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자녀들의 언어뿐만 아니라 다른 교과목의 학습 향상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이들에게 체계적인 언어교육이 필요함을 의미하는 것이다. 나아가 이들의 또 다른 고민은 본국과의 문화적인 차이로 한국 사람들의 자녀교육에 대한 지나친 열정을 이해하기도 힘들고 따라갈 수도 없다는 것이다. 이들 대부분은 경제적으로 취약하고, 교육 정보 면에서도 부족함 등 한국의 교육문화를 따라갈 수 없다는 것이다. 이로 인해 교육을 시키고 싶어도 때맞춰 제대로 시킬 수 없는 현실을 안타까워하고 있는 마음이 다문화가정 자녀에게 대한 지원과, 방과 후 학교 교육 활성화를 자녀교육 문제 해결 방법으로 우선순위로 꼽았다.

우리사회는 예로부터 단일민족임을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다른 민족이나 문화는 배척하는 경향을 띠고 있다. 따라서 결혼이주여성들은 한국인들이 타 문화에 대한 배타적인 점을 경험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 또 문화적인 이질감과 소수 결혼이주여성들에 대한 다름의 차이를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고 수용보다는 동화를 요구하는 한국 사회의 요구로 인한 고충이 있다. 또한 이들은 언어가 다름으로 인해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겪으며 외부로부터 고립되고 가족이나 이웃으로부터 무시당하는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이다(이현주, 2009).

결혼이주여성들은 익숙한 고향을 떠나서 낯선 한국에 와서 새로운 가정을 꾸리고 생활에 적응해 나가는데 있어서 가족의 지지와 사회적 지지는 매우 중요한 요소가 된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실질적인 자원이 오가는 외부의 도움을 받고 있는 여부에 따라 사회적 어려움을 극복하는데 긍정적인 영향력을 가질 수 있지만 결혼이주여성들은 실질적이고 가시적인 도움을 떠나서 사회적 지지체제의 존재 유무가 그들에게 갖는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다. 이들은 가정에서의 어려움이나 문화적 어려움을 겪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위해 도움을 줄 사회적 자원이 적은 대상자들이다(정주연, 2008).

본 연구에서 이들의 사회생활 인식을 살펴본 결과 국가별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한국생활에 가장 힘든 점은 중국은 경제적 문제였고 베트남, 필리핀, 기타 국가들은 언어문제가 가장 많았다. 이것은 선행연구(류순희, 2010; 조한숙, 2009; 최유진, 2007)에서 이미 밝혀진 것과 같았다. 그리고 자녀양육, 생활관습, 문화차이, 차별, 편견, 가족 갈등 순으로 힘든 점이 나타났다. 한국생활에서 차별을 받은 장소는 주로 상점, 음식점, 은행 등 공공장소(46.51%)에서 받은 것으로 보아 이들이 우리 사회 곳곳에서 크든 작든 차별 대우를 받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한국사회 적응을 위해 가장 필요한 도움으로 언어소통, 자녀교육, 지역사회 적응, 직장 내 문제, 정보 및 상담제공, 한국인과 우호적 관계 순으로 응답하였다. 이와 같이 언어문제와 자녀교육이 이들의 사회생활에 여전히 장애가 되고 있고, 이주여성이 지역사회에 적응하는 것도 어려움이 있다는 것이다. 한국사회가 다문화 가정에 대한 인식이 좋아졌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이들에 대한 편견과 차별대우가 존재함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이주여성들을 우리와 더불어 사는 가족으로 인식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여겨진다.

마지막으로 결혼이주여성들이 자주 참여하는 모임이나 활동은 종교단체, 모국인 친구모임, 남편의 가족 및 친척 모임으로 나타났다. 이는 한국생활의 외로움을 달래고, 정보를 교환하고, 모국인 들을 만나기 위한 장소로 종교단체를 택하는 것 같다. 이런 사실에 기인하여 종교단체들은 이들을 따뜻하게 맞아주며, 한국생활에서의 힘든 점을 서로 공감하며, 해결할 수 있는 통로와 최선을 다해 도움을 제공해 주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어려울 때 의논하는 대상은 한국인(50.00%), 모국인(46.51%)

으로 한국인과 모국인은 비슷한 수준이나 의논하는 내용에 따라 대상이 다를 수 있다고 사료된다. 이들은 종교단체나 모국인 모임 등에 나가서 어려움을 토로하고 해결하기 위한 의논을 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이상과 같이 농촌지역 결혼이주여성들의 한국생활에 대한 인식을 통하여 이들이 현재 어떻게 생활을 하고 있는지, 상황이 어떠한지를 엿볼 수 있었다. 이들이 지역사회와 한국사회에 잘 적응하며 자녀들을 잘 양육할 수 있는 기틀을 지역사회와 한국사회는 제도적으로 잘 마련하여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할 것이다. 또한 이들에게 무조건 한국화를 강요할 것이 아니라 그들의 문화와 관습을 인정하고 수용하면서 한국문화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문화체험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한국인 배우자와 그의 가족들도 이주여성들에 대한 문화를 이해하고 수용하는 기회가 제공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의 한계점으로 연구대상자 표집을 경기도와 인천에 거주하는 결혼이주여성으로 제한하였으므로 전체 결혼이주여성으로 일반화 시키는데 제한점이 있다. 또한 일반적 특성에서 출신국가는 중국, 베트남, 필리핀, 몽골, 우즈베키스탄, 대만, 일본, 인도네시아 순이었으나 연구결과에 대하여 중국, 필리핀, 베트남, 기타(그 외 국가)로 분류하여 분석을 하였다. 이것은 중국, 필리핀, 베트남을 제외한 나머지 국가들은 극소수이었으므로 연구의 편리성을 위하여 표집에 나타난 전체 국가들을 다 언급하지 못하였다. 이 또한 연구의 한계 및 후속연구로 제언하는 바이다. 아울러 한국생활에 대한 인식을 구성하는 다양한 측면이나 지표들을 사용하지 못하고 전반적인 생활의 인식을 묻는 문항으로 측정이 이루어진 것도 본 연구의 제한점이다. 그리고 결혼이주여성들의 전체적 접근이므로 출신국가에 따른 차이에 대해서는 자세히 연구하지 못했다. 따라서 후속연구에서 좀 더 다차원적인 측면을 고려하여 결혼이주여성들의 도시와 농촌의 비교, 각 국가별 비교 등 생활의 실질적인 측면을 연구할 필요성이 있다.

■ 참고 문헌 ■

- 강희원. (2006). 한국다문화사회의 형성요인과 통합정책. *국가정책연구*, 20, 5-34.
-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2010). *경기도내 국제결혼 이민자가족 실태조사 및 정책적 지원방안 연구*.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
- 교육과학기술부.(2010). <http://www.mest.go.kr>.
- 김민영.(2007). 여성결혼이민자 지원에 관한 연구. 원광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김은실, & 김정선.(2007). 지구시대 개인들의 행위 전략으로서 국제결혼 연구. *이화여자대학교출판부*.
- 김이선. (2007). 여성 결혼이민자의 문화적 갈등 경험과 소통 증진을 위한 정책과제.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류순희. (2010). 다문화가정 여성의 삶과 만족도에 관한 연구. 한서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박재규. (2006).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농촌생활 적응 관련 요인 분석, *농촌경제* 29(3), 99-100.
- 법무부. (2010). *출입국·외국인 정책본부 연보* 법무부.
- 법무부. (2011). *출입국·외국인 정책본부 연보* 법무부.
- 보건복지가족부.(2009). *2008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사업결과보고서*. 보건복지가족부.
- 서은숙. (2009). 다문화시대 한류의 정체성과 방향. *인문콘텐츠*, 14, 165-167.
- 설동훈. (2007) 국제 노동력이동과 외국인노동자의 시민권에 대한 연구. *민주주의와 인권*, 7(2), 350-39
- 신윤희. (2002). 동아시아 한류현상: 비교분석과 평가. *동아연구*, 42, 7-15.
- 유영은. (2006). 결혼이주여성의 생활문화 적응에 관한 사례연구와 지원방안: 경기도 북부지역중심으로. 명지대학교 석사논문.
- 이주여성 긴급지원센터.(2009). *이주여성 상담자료집*. 이주여성지원센터.
- 이현주. (2009). 여성결혼 이민자의 삶과 자녀교육에 관한 연구. 순천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임형백. (2007). 한국의 다문화사회의 특징과 사회통합을 위한 다층적 접근. *한국사회학회*.
- 정기선. (2007). 경기도 코시안의 실태와 지원정책 방안. *성결대학교 개교 45주년*

기념 세미나.

- 정주연. (2008). 베트남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삶의 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연구. *사회복지 학생연구 논총*, 2, 236.
- 정혜은. (2009). 결혼이민자에 대한 사회적 인식에 관한 연구. 성신여자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조한숙. (2009). 농촌노인과 외국머느리의 고부관계 만족도 및 문화적응 스트레스에 관한 연구. 한서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주경란. (2009). 다문화가정의 자녀교육 정책방향에 연구. 조선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최유진. (2007). 한국의 다문화가정에 대한 기독교 교육적 접근. 장로회신학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충청남도.(2009). 여성결혼이민자가족 실태조사. 충청남도 복지과.
- 통계청. (2010). 2010년도 혼인·이혼 통계결과. 서울:통계청.
- \_\_\_\_\_. (2011). 2011년도 혼인·이혼 통계결과. 서울:통계청.
- 한국염. (2004). *이주여성의 실태와 과제*. 서울외국인노동자센터 정책 세미나 자료.
- 한국여성정책연구원.(2008). *다문화사회를 향한 전망과 정책적 대응*.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홍소연. (2007). 여성결혼이주자 지원 정책에 관한 연구. 계명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Adams, B. N.(1990). *The family*. Chicago: Rand Mc Nally College Company.
- Berry, J. W.(1997). Immigration, acculturation and adaptation. *Applied Psychology: AninternationalReview*, 46, 39-45.
- Martiniello. M.(2002). *현대사회와 다문화주의: 다르게, 평등하게 살기*.(윤진 역). 도서출판 한울.
- Stalker, P.(2004). 국제이주. (김보영 역). 고양: 이소출판사.

Received 25 January 2013; Revised 5 March 2013; Accepted 10 March 2013

## Awareness to the Experience of Rural Married Migrant Women's Life in Korea

Hyun Sim Lee

Dept. of Social Welfare, Seoul Venture University  
Samsung-dong Gangnam-gu, Seoul, 37-18, Republic of Korea

###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he awareness about the experiences of immigrant women residing in rural areas of life in Korea. Immigrant women residing in Gyeonggi Province and Incheon was a self-reported survey. Data collected by utilizing the SAS(Statistical Analysis System), percentage, mean, standard deviation, frequency analysis, including descriptive statistics were used. Findings, more than half of the migrant women are satisfied with their lives, and showed a high level of satisfaction with the husband. Learning map awareness in the education of their children in the most difficult and the necessary support to the children the basic curriculum map, Children's education as a way to solve the problem of after-school and school education activated and was the language barrier. Hard life in Korea, the language is a problem, Place discrimination received was a public place. Adapt to Korean society, language communication, child education, community adjustment problems with the same level of help was most needed. Meetings or activities often involve religious organizations, their home country, and meeting friends. His native Koreans, when it is difficult to discuss in order. Based on the results of such, Korea and community well adapted to the social framework

that can nurture children married immigrant women in rural areas communities and Korean society and institutional as well prepared, and In addition, the foundation will need to activate the program.

**key words : In rural areas, Immigrant women, Korea Life experience**





Hyun Sim Lee is a professor of Department of Social Welfare in the Seoul Venture University, South Korea. Her research interests on Social welfare, social welfare for the elderly, and the elderly psychological counseling. Address: Department of Social Welfare, Seoul Venture University, Samsung-dong, Gannam-gu 37-18, South Korea. e-mail) [sim7173@hanmail.net](mailto:sim7173@hanmail.net), phone) 82-2-3470-5274